

한국수자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1) 리더십	2	D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	B ⁺		
	(3) 국민소통			1	0.970
	㉠ 소통 참여, 투명성 제고	0.5	B ⁰		
	㉡ 정보 제공	0.5	B ⁰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B ⁰	2	1.500
	(2) 안전 및 재난관리	1	D ⁺	1	0.850
	(3) 친환경·탄소중립	1	C	0.5	0.5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2	1.970
	(5) 윤리경영	1.5	E ⁰	1	0.669
	3. 재무성과관리				
	(1) 재무예산관리				
	㉠ 재무예산관리	2	D 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C		
	㉢ 재정건전화계획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2	1.260
	㉡ 영업이익률			1	0.300
	㉢ EBITDA 대 매출액			1	0.400
	㉣ 부채비율			2	1.986
	㉤ 이자보상비율			2	0.589
	㉥ 일반관리비 관리			3	0.898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	0.762
	㉡ 인건비생산성			1	0.403
	㉢ 자본생산성			3	1.395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	B ⁰		
	(2) 노사관계	2	B ⁰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5	B ⁰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 ⁰			
(2) 총인건비관리			3	3.0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물나눔서비스 사업				
	(1) 물공급 안정성			4	3.980
	(2)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4	3.998
	(3) 물공급 효율성			4	3.851
	(4) 물나눔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 ⁰		
	2. 물안심서비스 사업				
	(1) 치수 안전도			3	2.987
	(2) 이수 안전도			3	2.285
	(3) 안전관리율			2	1.337
	(4) 물안심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물융합서비스 사업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1	0.537
	(2) 물산업 육성 노력도			2	2.000
	(3)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1	0.827
	(4) 물융합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4	C		
전체 합계		48.5		51.5	
가점	1.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노력과 성과 가점				
	(1)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3			2.564
	(2)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1			0.700
	(3)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200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1) 리더십

- 기관은 기관장 계약과제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모호함을 지적한 경영평가단의 지적과 관련하여, 계약과제와 성과제도를 연계하여 조직 및 개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시스템 기반의 과제 모니터링 및 달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관장 계약과제 실행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파급력을 포함한 5대 분야와 19개 척도를 분석하여 계약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기관은 정상부터 부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고 하나 기관장 경영계약의 진도율과 기관 대응방안을 실질적으로 연계한 실효성 있는 경보체계의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경영 계약과제의 전체 성과지표 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극한 기후 대응과 새로운 정부정책 및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6개의 성과지표를 보완하였다.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도 변경하였다. 물재해 예방을 위한 '댐 최적 운영'의 측정방법을 개선하였고,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기관장 계약과제 관리 등을 통해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ESG 경영선도'라는 성과지표로는 ESG 경영체계의 평가등급을 우수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기관의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지표와 일치하는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기관은 이사회의 투명성과 준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안전 및 준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무, 환경, 정책 외에 법률과

안전을 포함한 5개 전문가 분야로 확장하였고 노동이사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경영의 변화에 맞추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고, 부의사항을 확대하였으며, 경영 자문 건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의 참석율이 전년대비 줄었고, 근로자 대표의 경영 제언이 감소하여 이사회 활성화 및 근로자 참관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략 수립을 위해, 기관은 'Inno-WAVE'라는 전사 혁신기구를 통해 본사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였다. K-water의 비전과 전략을 모든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히나 경력이 적은 젊은 직원들을 위해 이를 스토리텔링과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한 새로운 경영 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가치 체계를 경영의 모든 영역에 반영하여 이를 내면화하였다고 하나 전 직원이 비전과 전략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극한의 기후 변화와 첨단 산업 분야의 증가하는 물 수요를 고려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신규 댐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10개의 신규 댐 건설을 위한 예산인 93억 원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정 집행 목표를 101.9%, 즉 404억 원 초과 달성하였으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리더십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추진, 미래성장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배분, ESG 이행력 제고, 혁신계획 이행 완료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기관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비교적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각 조치 별 개선효과가 기관이 의도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새 기관장이 취임한 이후 7월부터 새롭게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Inno-WAVE 추진단 활동을 시작하여 4개월 후인 11월에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여는 Inno-WAVE 30개 과제’의 수립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나 내용적 측면의 완성도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23년의 평가 기간의 대부분은 기존 전략계획 하에서 기관이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존 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또한 실적보고서에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금번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은 새로운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로의존성이나 조직 내부의 관성에서 탈피하면서 국민과 고객의 니즈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아마존 발상의 전환’을 도입함으로써 거꾸로 일하기 방식을 활용하는 등 혁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이 얼마나 가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발견된 니즈를 보면 ‘극한 물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 ‘첨단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확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니즈가 과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만 식별 가능한 니즈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관이 추구하는 대전환적 방향설정이 본래의 의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명시한대로 ‘국민/산업/지역/정부/직원’ 등 각각의 행위자 별로 어떠한 기대와 요구가 식별되었고, 이러한 정보는 기존과 얼마나 차별화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기관이 '23년도에 수립한 전략계획 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략적 요소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기관이 추구한 바와 같이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위험 요인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물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

한 것으로서 대전환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비전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에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4개의 핵심가치를 '안전, 역동, 공정'으로 정비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하여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은 직전 2개년도 경영평가에서 핵심역량,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미래성장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 영역의 선정과 자원 배분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척도를 적용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적합성과 시장매력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서도 각 기준을 구성하는 하위기준을 임팩트 창출 범위와 핵심역량 활용도, 매출확대 수익성과 신시장 창출 성장성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각 사업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은 4개 전략 사업단위 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사업의 구상에도 연계하는 등 상당히 진일보된 사업체계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의 전략체계를 보면, 4개로 정비된 전략사업단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사업과 관련된 4개의 전략 방향에다 '유능한 조직 구현'을 추가한 5개의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고, 각 방향 별로 25개의 전략과제를 배치하였으며, 전략 과제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5개의 Key Tasks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전략 과제의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구조가 마련되고, 정확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구조와 자원배분 이슈와 관련하여 기관은 과제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사업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 단위의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점이 확인되어 향후 본 전략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상당히 개선된 전략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은 '23년도에 다양한 형태로 민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4대 전략사업 중 '물특화'에서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요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기업과

연계된 직접전력거래계약(PPA)를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확대하고 있으며, 네이버와는 민간 RE100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원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초순수국산화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사우디의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에 네이버와 함께 참여하는 등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사업이 MOU체결이나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성공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장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관은 경영혁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경영혁신 체계를 유지하면서 Innowave 추진단이라는 대규모 혁신 TF를 조직하고 혁신자문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21년도부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국민디자인단과 국민소통센터를 꾸준히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의견수렴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현행 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취약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견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기관은 '22년도에 수립된 혁신계획의 목표를 전년도에 조기이행한 이후, 추가적인 자산매각 분야를 발굴하여 원 계획상의 목표 대비 164% 초과 달성한 성과가 확인된다. 이러한 비핵심자산의 적극적 매각을 통해 기관은 현금흐름을 개선함과 동시에 출자회사의 합병으로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도 합병된 법인이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자본증가와 부채비율 감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재무적 지표가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혁신 노력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년도에 ESG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ESG경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던 기관은 '23년도에는 "K-Water ESG 추진전략('23~'27)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ESG경영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ESG 성과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ESG 전략과제의 사회적 영향력과 개선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가치측정모델을 도입함으로써 ESG경영의 임팩트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

- 기관이 적극행정을 위한 기존의 사전컨설팅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AI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 점은 의미있는 혁신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이 개발한 AI양정예측 모델은 감사시스템 내에서 과거 조치 요구서를 딥러닝을 통해 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요구서에 대한 양정을 자동적으로 도출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기관은 '23년도 10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130건 적용 사례를 축적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논집에 우수사례로 게재되는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인정된다.
- 기관의 비계량지표들의 목표는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되어서 실적의 가치를 명확히 진단할 준거로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순수 기술 자립과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설정한 '23년도의 목표는 “국내 기술로 생산한 반도체급 초순수 공급”으로 어느 수준의 기술 개발이나 공급이 우수한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목표로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이 관리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 대한 사전적 정량화가 어렵다면,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업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AI 모델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목표부여	별점 0점	별점 0점	100.000	0.5	0.500
고객만족도 × 80% +국민인식도 × 20%	목표부여	100%	고객만족도 : 100.000% 국민인식도 : 69.781%	94.000	0.5	0.470
계				97.000	1	0.97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점검·평가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평점 97.000점, 득점 0.97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은 오류없이 충실히 공시한 결과 주무부처의 지적사항이 없었고,
- 고객만족도는 조사 대상 3개 부문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국민인식도는 지속적인 기관 홍보 노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 3년 연속 만점을 달성하고 있다.
- 고객만족도는 전 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등의 결과로 고득점을 유지 중이며 국민인식도 조사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조사 득점이 모두 상승하였다.

【비계량 부문】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및 투명성 제고

- 이해관계자 분석의 구체성을 높여서 소통채널 개선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은 영향력과 관심도 기반의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사업단위별 소통 채널을 개선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민간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물산업관련 비즈니스 플랫폼과 환경빅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소통대상을 국민, 고객, 지역주민, 물산업계, 정부/유관기관으로 분류한 후, 다시 4개의 전략사업 단위별로 소통대상을 식별하고 각 소통대상의 특성에 맞는 소통채널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통 대상별로 주관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주관부서 인력의 주도로 역할을 분배하는 등 체계적이고 분야별로 특화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은 '23년도의 대표적 실적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신규댐 건설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신규댐의 필요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지역문제플랫폼을 통해 확보하여 그동안 일회성 의료봉사활동에 그쳤던 지역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K-의료버스로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실적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문제의 발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식을 구체화하고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론이 보다 확대 적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의 서비스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국민소통의 방법론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관은 50년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소

통을 통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점검과 정비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율절수를 홍보하는 등 공급물량 추가확보를 위한 협업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된다. 다만 기관이 보고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미래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극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는 소통채널의 확보와 운영 역량의 배양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혁신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㉔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활용 등 정보 제공

- 기관은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고,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기록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공유, 개방, 활용에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보면, 2020년에 제정되었던 비공개 세부기준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하였고, 법령상 10일인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평균처리기간 3.9일을 달성하는 등 제도개선과 실적 양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 영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외부관계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였고, 워드클라우드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원문공개 전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된다.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 6.8점에서 9.85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만한 실적으로 볼 수 있다.
- 기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사업화를 위해 디지털위터플랫폼인 위터라운드를 '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는 AWS와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

하여 솔루션 개발로 사업화하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실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데이터 공개를 통한 사업화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활용 등 정보 제공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75.000%	75.000	2	1.500

나. 평가내용

- 청년 미취업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평점 75.000점, 득점 1.5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청년고용촉진법」상 의무 채용인원을 달성하였지만, 의무고용 초과달성 목표에 미달하여 실적이 다소 하락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장애인 제한 공채 실시 및 맞춤형무 개발 등 지속적 노력중이나 목표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득점이 정체 중이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주관부처에서 정한 권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5	81.676	1.225
장애인 의무고용	0.3	25.000	0.07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0.1	100.000	0.10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0.1	100.000	0.100
계	2.0	75.000	1.500

라. 추세분석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신규채용 비중 확대 어려움으로 최근 득점이 하락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채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소 득점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지속적으로 만점을 유지 중이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일자리 질적평가 시 지표간 우선순위 분석 및 상대적 가중치 재검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통계를 활용한 우선순위의 재구성 및 가중치 차등 부여, 청년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표 가중치 조정 등의 통해 질적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청년 중심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추가된 지표의 득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지표 구성을 기존 지표값과의 비교, 전년도 실적값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지표인지 검토하고, 적정한 지표라면 측정 방식을 다각화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불명확한 민간 일자리 창출 근거를 개선하여 실제 고용 일자리의 경우 해당 일자리의 평균 근속개월로 일자리 수를 환산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기관은 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전사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운영하여 200여개 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개인평가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의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발굴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사 공감대의 형성과 참여 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원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방안 등의 개선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실습형 인턴의 경우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7주에서 6개월 단위로 기간을 확대하고 참여인력을 전년 14명에서 37명으로 증대시킨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입사 1일차 교육 등 조직적응 지원과 전문컨설팅을 통한 인턴 출신의 정규직 합격률 증대 등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월 1회 채용설명회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육아휴직 예상자 반영, 복직자 및 퇴직자 추세 관리 등 실시간 결원관리를 위한 결원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결원파악 및 충원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각 부서별 수요 파악을 통해 청년인턴을 적극 활용한 결과 결원률을 역대 최저인 0.84%를 달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기관은 지역별 인력 수요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채용 및 인사관리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연차 직원의 퇴사 인원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퇴사율은 감소했으나, 퇴사 인원은 증가함)에서 저연차 직원의 조직 적응 및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생애주기별 퇴직 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나, 신입직원에게 퇴직 관리 등은 실시되고 있지 않아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인사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격오지 근무에 대한 불만 등의 이직 사유는 퇴사 직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직원에게도 근로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입사 이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의욕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처 공정채용 전수조사에서 주의 1건 및 통보 1건을 받았다.

- 기관은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맞춤 직무를 신설(문헌 관리원)하고 직무 운영부서를 전년 대비 2대 확대하였다. 그 결과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 수상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85.000%	85.000	1	0.850

나. 평가내용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평점 85.000점, 득점 0.85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안전관리등급제는 안전역량 4등급, 안전수준 2등급 및 안전성과 1등급을 달성하여 종합 등급은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은 S등급,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

되어 평점 96.000점 득점 0.480점을 기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안전관리등급제	0.5	74.000	0.370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및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0.5	96.000	0.480
계	1.0	85.000	0.850

라. 추세분석

-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강화 및 맞춤형 안전개선 활동 추진 등을 통해 안전관리등급제 종합결과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5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가 정보보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안전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대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 구축, 인력 증원 및 예산 증가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 재난 및 테러 등에 대비한 자가 통신망 및 이중화 구축 등의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다. 기관은 지능형 영상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지와 안전업무시스템 통합 포털 오늘의 안전 구축, 안전 관련 조직진단 실시, 환경부망을 활용한 중대본 재난통신망 연결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기관은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로 재난안전, 국민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리포트의 월 단위 발간 및 CEO 월간보고 피드백을 보다 시각적으로(유역별 워크클라우드 분석 등) 제시하여 CEO의 안전의지를 최일선 근로자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안전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전 전담인력을 205명 조기 배치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기관은 디지털트윈을 통한 물재해 대응 기술을 강화하여, 댐-하천의 3차원 구현과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최적 기준수위를 도출하여 운영하였다. 댐 상류부터 하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홍수조절 의사결정으로 하류의 홍수피해를 ZERO로 유지하며, 위험지역을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술의 사우디 수출 등 기관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주의 2건(홍수기 중 용담댐 홍수기제한수위 관리 미흡, 댐 방류 통보업무 처리 미흡) 등 아직까지 기술 기반의 안전 관리가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건설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VR 교육프로그램을 4개국어로 개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가이드 및 안내 표지 등을 주요 외국인 노동자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 전략 및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오늘의 안전 등 통합안전관리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보안 문제, 주무부처 등의 차이로 인해 플랫폼 간의 연동 및 연계성 문제와 모바일 연계 등의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감시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의 감시항목 최적화 및 AI 감지 정확도를 향상하여 전 정수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민 방문이 많은 댐, 보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적극 확대 및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살펴볼 때, 메일 해킹에 대한 교육 이상의 전사적인 사이버테러 및 디지털 위협에 대한 교육과 대응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100.000%	100.000	0.5	0.5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 평점 100.000점, 득점 0.5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에너지 절약 운영계획 시행 및 홍보물을 활용한 적극적 직원 참여 독려로 주무부처에서 정한 10% 기준을 준수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 물품구매 사전 컨설팅 운영, 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3	100.000	0.300
녹색제품 구매	0.2	100.000	0.200
계	0.5	100.000	0.500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22년 신규도입된 에너지사용 절감 실적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는 만점을 지속 유지중이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활성탄 재생사

업에 대한 2단계 사업 추진 및 전 사업규모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기술검증 및 실증시설 운영으로 인한 열풍공정 개선과 재생효율 제고, 기업체 신규 수요 창출의 성과는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관은 자연과 상생하는 선순환 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발전의 기여를 목표로 순환적 물환경 조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선제적 기업과 지역 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수립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관 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사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은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애물단지인 댐 부유물을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댐 부유물의 대부분이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발전사의 초목류 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댐 수해목 탄소중립 자원화 협약을 이끌어 냈다는 점 역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댐 부유물을 쓰레기 혹은 오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사회의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정수장 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실증시설의 준공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유통, 활용의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물 관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직접전력거래를 네이버와 체결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수상태양광 등은 환경파괴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댐 상류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기관의 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탄소중립으로서 용담댐의 스마트에코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간의

수요 및 사업 운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 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8.500%	98.500	2	1.97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부에서 정한 7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점 98.500점, 득점 1.97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7개 항목 중 6개(기술개발생산물 구매, 여성기업생산물 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구매, 장애인생산물 구매, 국가유공자생산물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항목은 공공구매 관리계획 수립, 구매 담당자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실적은 대형공사 발주가 다수인 기관의 특성상 실적 규모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워 전년대비 득점이 소폭 하락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중소기업생산물 구매	0.5	94.046	0.470
기술개발생산물 구매	0.2	100.000	0.200
여성기업생산물 구매	0.2	100.000	0.200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구매	0.2	100.000	0.200
장애인생산물 구매	0.4	100.000	0.400
국가유공자생산물 구매	0.2	100.000	0.20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0.3	100.000	0.300
계	2.0	98.500	1.970

라. 추세분석

-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실적이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용담댐 주변에 생태 관광자원 개발 및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동형 세탁차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및 댐주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K-water 장학회」 사업의 운영체계를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규모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 상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기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모토로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방안’으로 6건의 개선안을 도입하였고, 대형공사 심사기준에서 안전항목의 평가를 강화하였으며(기존 가점부여 → 변경 1.6점 정규배점화), 계약체결 시 퇴직자 재직확인서 제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제도적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익명제보 시스템의 경우 이를 통한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의 정립이 실제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관이 실행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1년부터 중기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3년에는 수열에너지와 2차전지 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전북·강원권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였고(총출자금 840억원) 기관은 해당 펀드에 159억원을 출자하였다(지난 3년간 전체 펀드금액 4,668억원, 기관의 누적 출자금액 999억원).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통해 물산업 투자재원 2,801억원이 확보되었고 '23년까지 실제 물기업 53개사에 58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 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 EPC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선정」으로 징계문책 및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제도(특히 해외사업관련)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은 선급보증 수수료의 확대(전년 대비 수수료 지원금 64% 증가) 및 제도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선급지급액을 7% 증가시켰고('22년 8,057억원 → '23년 8,589억원), 상생결제의 활용도를 높였다(상생결제시스템 활용금액 '22년 0.1억원 → '23년 4억원). 다만, 상생결제의 경우 전년 대비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금액 자체의 규모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66.900%	66.900	1	0.669

나. 평가내용

-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평점 66.900점, 득점 0.669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내부통제지원 및 자체감사활동 등 기관의 감사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감사 계획 기반 고위험·취약분야 중점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득점이 0.119점 향상되었다.

라. 추세분석

- '22년 지표 신규 도입 이후 지속적인 기관의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노력 및 감사역량 제고로 득점이 상승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신고활성화 및 부패요인의 조기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단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편의 중심의 신고채널을 개선하고 부패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내부채널 활용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자회사 준법·윤리경영 체계구축이 필요한 측면에 관해 자회사 K-CP(청렴윤리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규정정비 및 재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하여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회사 별 청렴도 조사의 점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윤리경영 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기관장 윤리경영 의지를 전사 경영전략 과제로 반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 중점 개선을 통해 구성원·국민 청렴공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준모델의 핵심인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식별·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다층구조 3단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신윤리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신규 과제를 추진하여 내부통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고 재무분야 특화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회계 신뢰성 제고 노력을 한 측면은 바람직한 기관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패실태평가에서 2.2점 감점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달성하여, 기관의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계약 시 퇴직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상대업체의 계약관계자 명단, 공사 근무경력 등의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직원이 이직을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심사신고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자 및 이직업체까지도 관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직자 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패취약 분야 관리 측면에서 건설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개선된 하도급사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권익위 외부 체감도와 특혜 제공 항목 등의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여 부진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감경 불가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제시하였다. 상호 존중의 인식 확산과 인권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사례의 90%가 언어적 표현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의 인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 영향 평가의 '직원 인권 보호' 지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권익 침해 사건 관련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성비위 및 갑질 사고의 건수도 증가하여 관련 기관의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에서는 해외 법인(SPC)에 파견된 직원에 의한 사업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태양광 사업과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여 관련 재직자에게 징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필지에 대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사고가 발생하여 감사원 주의 처분이 완료되었다. 기관은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주의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⁰”로 평가한다

③ 재무성과관리

(1) 재무예산관리

㉠ 재무예산관리

- 기관의 '23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22년 대비 4.1% 감소) 영업이익의 하락 폭이 더 커서('22년 대비 46.7% 감소) 영업이익률('22년 12.3% → '23년 6.9%)과 이자보상배율('22년 3.9배 → '23년 2.1배)은 대폭 축소되었다. 기관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계획에서도 수익성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으므로('27년 이자보상배율 전망 1.48배)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경영체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환율, 금리, 신용, 유동성 별로 위험요인을 식별한 후 위험요인별 발생빈도,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지표에 외화수급 관련지표와 거래기관 신용도 및 거래자금 집중도 지표를 추가함과 동시에 유가, 경제지수(BSI), 주가지수(MSCI) 지표를 신설하는 등 위험대응 체계를 개선하였다. 다만, 기관의 위험

대응체계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 대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재무위험에 대한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위험요인별 시나리오를 정립함과 동시에,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관은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지역혁신 벤처펀드」(총 4,668억원)에 999억원을 출자하여 지역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상생협력예금으로 160억원을 예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물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상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의 재무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경우 기관 외에 정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고 있고 존속기간도 12년이어서, 상생협력예금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자금사용의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과 관련된 펀드 및 예금 등에 대하여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해외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 파견직원의 8억원 횡령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사업 수행과 관련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에 위반되는 등 신관 건립 추진 부적정」으로 징계문책 및 주의 처분을, 「불요불급한 송산 글로벌교육연구센터 건립」과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오류 및 회계감사 부실」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투자와 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증체계의 고도화, 회계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⁰”로 평가한다.

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발전단계 선행지표인 유가 KEPT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동산 경기요건을 고려하여 필지별 매출 인식 시기를 추적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재무목표를 조정한 결과,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계획-실적 간 차이가 '22년에 비해 '23년에 대폭 축소되었다(영업이익의 계획 대비 실적 간 차이 '22년 3,199억원 → '23년 346억원).
-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방안에서 자구노력으로 '23년~'27년 사이 총 3,960억원의 비핵심자산 매각계획을 제시하였다. 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자산매각 예정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 국제테마파크 용지 매각 시 저가매각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문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산매각 체계를 고도화하여 매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㉕ 총자산회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매출액/ 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56 최저 : 0.181	0.221	62.994	2	1.26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4.2% 하락한 0.221을 달성하여, 1.26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매출액은 주력 사업인 광역 및 지방수도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변사업 및 발전사업 매출 감소로 전년대비 4.1% 감소한 4.5조원을 달성하였다.
- 총자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0.5조원을 기록하였다.
- 총자산은 유사한 반면 매출액이 감소하여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 확대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 다만, '22년 실적이 15.3%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기준치 상승 등으로 '23년 득점은 감소하였다.

④ 영업이익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영업이익/ 이자비용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69 최저 : 0.129	0.092	30.000	1	0.3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38.1% 하락한 0.092를 달성하여 기본득점인 평점 30.000점, 득점 0.3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영업이익은 주요 원가인 전력료를 비롯한 원가 상승과 발전사업 판매단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7% 감소한 0.4조원을 달성하였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4.5조원을 달성하였다.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영업이익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률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매출액 감소(4.1%)보다 주요 원가 상승 등에 기인한 영업이익 하락의 감소(40.7%)가 커서 하락하였다.

㉔ EBITDA 대 매출액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EBITDA/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335 최저 : 0.278	0.251	40.000	1	0.4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19.5% 하락한 0.251를 달성하여 기본득점인 평점 40.000점, 득점 0.4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EBITDA는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의 상각 만료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한 1.1조원을 달성하였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4.5조원을 달성하였다.
- 매출액에 비해 EBITDA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9년 이후 EBITDA대 매출액 실적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22년 소폭 상승하였다가 '23년 다시 하락하였다.

㉔ 부채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채/자기자본	목표부여 (편차)	최고 : 62.6% 최저 : 88.0%	63.5%	99.276	2	1.986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 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10.6%p 개선된 63.5%를 달성하여 평점 99.276점, 득점 1.986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적극적인 금융부채 상환 및 차입관리, 경영개선 노력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7.4% 감소하여 11.2조원을 달성하였다.
- 자기자본은 순이익, 정부출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6조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

㉕ 이자보상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영업이익/이자비용	목표부여 (편차)	최고 : 6.740 최저 : 2.941	3.391	29.474	2	0.589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38.0% 하락한 3.391을 달성하여 평점 29.474점, 득점 0.589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영업이익은 주요 원가인 전력료를 비롯한 원가 상승과 발전사업 판매단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7% 감소한 0.4조원을 달성하였다.
- 이자비용은 최적 유동성·차입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4.2% 감소한 1,234억원을 달성하였다.
- 이자비용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여 전년 대비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년 이후 이자보상비율 실적이 지속 상승 추세였으며 '22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3년 하락하였다.

㉞ 일반관리비 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일반관리비/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51 최저 : 0.067	0.063	39.839	1.5	0.598
일반관리비/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35백만원/명 최저 : 40백만원/명	40백만원/명	20.000	1.5	0.300
계				29.933	3	0.898

나. 평가내용

- 기관의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통해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여 평점 29.933점, 득점 0.898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일반관리비는 주요 원가상승 및 폭우에 따른 부유물 제거 비용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2,847억원을 기록하였다.
-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한 4.5조원, 평균인원은 일부사업 종료에 따른 비정규직 축소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 매출액 및 평균 인원은 감소한 반면, 일반관리비는 증가하여 전년 대비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과 평균인원은 기관의 지속적 사업확대 노력을 통해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23년 전년대비 각각 4.1%, 0.2% 감소하였다.
- 일반관리비는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원가 상승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지급 수수료 등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실적은 항목별 증감 비율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전년보다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가 11.4%,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가 7% 증가하여 하락하였다.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331백만원/명 최저 : 267백만원/명	281백만원/명	38.115	2	0.762

나. 평가내용

-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해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기관의 직원 1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81백만원을 달성하여 평점 38.115점, 득점 0.762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세전이익 감소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9.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 평균인원은 일부사업 종료에 따른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2% 감소한 7,042.7명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확대 등 부가가치 향상 노력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3년 부가가치 감소로 득점이 1.238점 하락하였다.

㉔ 인건비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인건비	목표부여 (편차)	최고 : 3.465 최저 : 2.572	2.799	40.330	1	0.403

나. 평가내용

- 인건비 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해 기관의 인건비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 기관의 인건비생산성은 전년 대비 16.7% 하락한 2.799를 달성하여 0.403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세전이익 감소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 효율적 인건비 관리로 인건비 상승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대비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인건비 생산성은 부가가치와 인건비 증감률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전년도 급격한 성장(18.9%)으로 기준치가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가 하락하여 득점이 0.564점 하락하였다.

㉔ 자본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28 최저 : 0.098	0.108	46.499	3	1.395

나. 평가내용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해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3년 기관의 자본생산성은 전년 대비 13.8% 하락한 0.108을 달성하여 1.395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세전이익 감소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 가동률을 반영한 총자산은 신규 취득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여 18.4조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자본생산성은 부가가치와 총자산 증감률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전년도 급격한 성장(21.2%)으로 기준치는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는 하락하여 득점이 1.605점 하락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 기관은 댐건설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신경영전략 이행을 위해 4대 조직·인력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대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직렬정원탄력제, 한시정원제를 도입하여 재배치 자원을 발굴하고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부족 상황을 극복하였다. 다만 조직진단과정에서 일부 의견수렴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절차를 개선하고 재배치 시 유사 직무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인력 공모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배치 전후 업무 연관성을 높이고 실제 재배치된 인력에 대한 업무 만족도, 업무 적응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의 권한 하부 위임 현황을 보면 규정 개정을 통해 본사와 유역본부의 경우 부문장·본부장 위임전결사항을 축소하고 처장 전결을 확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강한 책임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안전이나 회계 분야가 아니라면 보다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은 애자일 조직 운영가이드를 정비·배포하여 현장 애자일 조직이 17개에서 55개로 확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조직이 애자일 조직의 기본 특성을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애자일 조직의 적극적 운용을 대안적 조직모형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기관 고유의 애자일 조직 설계의 원리와 운영 및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운용한 실적을 추적하는 등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40개 전문직무를 선정하여 5개 전문직무에 대한 직원공모제를 시행하여 조직시스템을 통해 직무적합도를 판단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253개 직무별 필요역량, 자격 등을 명시하여 직무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직무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조직시스템을 인사와 교육에 활용한 것은 신조직업무

시스템을 타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개선실적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기관은 본사, 4개 유역본부, 현장지사 간의 혼합형 기능, 다중 지휘체제로 인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본사는 부문 중심 사업계획·총괄 및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유역본부는 본사계획 지원 및 현장 집행기능 지원으로 역할과 책임,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계획, 지원, 집행이라는 프로세스형 조직을 구현하여 부문별 책임경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 기관은 자회사 감사조직을 신설하고 ESG 경영실천 공동선언을 통하여 자회사 경영리스크 대응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자회사 2개에 대한 경영진단을 거쳐 양사의 핵심현안을 파악하고 모회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TF 운영으로 사업조정·임원감축·기능강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계획 상의 자회사 통합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통합 후 직급체계와 급여제도, 평가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모회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며 설립 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현안 대비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해 6개 전략 분야별 3단계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5 key Tasks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양성과정(K-Study, Pro, Master)을 운영하는 등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다만 교육체계 구축에 있어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수준에서 기대되는 역량을 식별하고, 이를 발전시키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운영 결과로 HRD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HRD 체계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재무, 안전, 민생과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고 초과득점 인정제 도입, 난이도 득점 차등제 강화, 평가과정 상의 피드백 강화 등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기관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찾아가는 설명회·교육 및 전직원 설문 등을 통해 평가단 개선, 지표설계-성과도출 전과정으로 컨설팅 확대, 부진부서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관리제도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을 높여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하고 있으나,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두지 않았고, 비간부직의 경우 최고등급과 차하위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기준점수 미만시 저성과자를 확인하고 보직조정, 심리상담지원, 과제수행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향상과 연계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개방형 계약직제를 본사 간부직의 15% 수준으로 지정하고 특별승진 대상을 3~4급 상당에서 2급~6급 상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방형 계약직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등 정부방침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이 유역내 순환전보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역변경심사제를 신설한 것, 남성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활용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현장 노조간부 및 직원이사 FGI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실현’이라는 노사관계 미션을 설정하고 국민이 바라는 가치·상생경영 실현 등 4대 방향, 8대 과제와 12대 성과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다만, 직원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높지 않아 전체 직원수 대비 참여율이 저조하며, 이로 인해 설문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설문방식의 변경, 응답률 제고 등을 통해 전략수립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근로자참관제를 병행운영하고 있는 것, 노사공동 수도요금 동결 선언은 근로자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물가부담 완화 및 민생고 분담을 위한 노사협력의 바람직한 성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이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신뢰경영지수)해서 조직문화의 현수준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등 노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대, 계층, 고용형태 등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그 자체가 노사 및 조직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능임을 고려할 때,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예상 갈등유형의 사전 정의, 갈등수준 진단,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의 체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사협력관계는 법과 원칙의 준수에 기반할 때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것이므로, 노사가 공동으로 법률위반 및 불합리 관행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속적 점검·개선체계를 정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감성기반소통 등 4대 소통방향을 정립하고 CEO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전직원 희망메시지, 부서원 간 자율주제 소통, 소통촉진자 교육 정례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상향식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1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 더하기 캠프, 지피지기 프로그램 등 신규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들을 확대·개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수강 가능기간 확대, 직급별 역량 고려한 프로그램 등 개선을 통하여 사이버 교육수강 인원이 증가한 것, ‘노사관계 만족도’ 내부평가 지표화를 통해 환류체계를 개선한 것은 노무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긍정적인 개선노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통촉진자 특별교육을 제외하면 노무관리 직무교육은 소수의 노사협력 핵심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 노무이슈 집중교육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본사 및 각급 조직에서 인사노무 및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일반적 또는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대상자 확대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의 노사관계 만족도 조사는 직급·직군 등에 따른 표본 추출에 의한 표본집단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문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여 응답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권익침해 관리조직을 일원화하여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고충처리 지침을 고충처리사규로 상향 제정하고 FAQ·사례공유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은 권익보호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직장 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선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상담, 처리를 위한 고충전담창구 업무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여부를 기관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위탁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객관적 조사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처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거나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한국수자원공사는 직무분석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직무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였

으며 사업환경 변화 및 신규사업 여건을 반영한 직무현행화로 46개의 직무를 추가로 발굴하여 총 253개 직무를 분류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다. 기관은 간부직의 468개 직위평가와 7개 등급, 비 간부직 253개 직무평가와 4개 등급의 직무등급을 설정하였다.

- 기관의 직무기술서는 역량, 기술 및 지식, 교육, 자격, 성과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항목(역량수준)의 경우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간부직의 경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고 비계량평가에서 6개 평가요소를 정하였으며 요소별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비 간부직은 6개의 평가요소를 정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간부직과 달리 설정하였으며 간부직의 의사결정능력 항목을 의사소통능력 항목으로 평가요소를 변경하여 차별화 하였다. 비 간부직 직무평가 점수는 정규분포를 보이고 직무등급은 4등급으로 설정하였으나 비 간부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운영직의 직무등급이 통상·교대와 본사·현장으로 구분하여 4등급으로 결정된 사실에서 직무가치에 상응하는 직무등급 결정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비 간부직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등급은 실질적으로 4개(C~F)등급에 해당하고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A·B 등급은 직급별 직무등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관의 직무등급별 직무급액은 직무급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급 차에 의한 직무급의 차이는 확인되나 동일직급 내의 직무등급(C·D등급)에 따른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비 간부직을 포함한 전 직원 직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의 직무급은 기본급여에 반영되고 2023년 폐지한 연공성 급여인 역량가산급과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여 직무급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직무관리 규정에 직무평가 주기, 직무평가단, 직무관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을 규정하여 직무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업무시스템에 직무기술서 탑재, 전문직무 공모제도 시행, 직무전문성 평정요소 신설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시행하였다.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추진과제별 실행시기가 불명확한 점은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로 연공성 급여인 역량가산급을 폐지하여 직무급 확대기반을 마련한 것은 기관의 성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기관이 복리후생 정부지침 미준수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정직기간 급여지급, 주택자금 대출 LTV 적용, 주택구입 자금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대출한도, 명예퇴직 대상자, 영어권 국가 파견자의 자녀 학자금 지급, 휴직기간과 휴직시 보수지급 등을 유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 계획 이행전담반 운영 등 내부 공감대 제고 활동을 기반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은 개선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주택관리비 관련 부분, 생활안정자금 금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등 복리후생 관련 미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복리후생비 집행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감사, 상시 모니터링, 분기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 적정성과 과도성 점검하고, 23년도에는 특근식대, 행사비 등 탄력적 집행이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여 업무효율화,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음이 확인(2,857 → 2,839천원)된다. 다만, 복리후생비 항목별 집행 점검을 체계화·제도화(외부전문가 검증, 공공기관 교차점검 등)함으로써 연도별 집행에 있어 큰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복리후생비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종합복지만족도 조사와 온라인 소통채널 톡톡수렴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유역 순환전보제

대상 직렬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촉진, 휴가 최소단위 개선, 마음건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활동을 통하여 종합복지만족도 지수가 상승하였다. 다만 종합복지만족도 조사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독려문자를 발송하는 등 직원 관심을 유도하여 응답율을 높였으나(20.9% → 26.6%) 여전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해당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내부평가와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직급, 직무, 세대 차이 등 직원의 특성에 따른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구성원의 정확한 복지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내부선발을 거쳐 사내벤처 창업을 지원한 것, 세르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세르파 지원인력이 증가(35명 → 55명)한 것,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기업컨설팅 직무를 운영한 것은 임금피크 대상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룬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임피대상 적합직무 3개를 추가 발굴하여 총 59개 적합직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수행하여 4개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직무급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 임피대상자에 대한 개인평가를 신설하여 기존의 조직평가 결과는 내부평가 성과급 차등에 활용하고 개인평가 결과는 인사관리에 활용(공로승진 대상 확대, 직무성과 우수직원 인센티브)한 것은 임금피크 대상 인력의 내부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개선실적이라고 평가된다.
- 기관은 변화관리 교육, 전직지원 교육, 교육 평가 및 환류로 구성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디지털 실무역량 등 변화관리 교육, 퇴직 후 전직 지원 프로그램, 기술자격증 취득 등 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교육과정 설문조사 문항수가 6개에 불과하고, 설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설문 항목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확한 교육니즈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체계적 반영이 필요하며, 임금피크제 교육프로그램이 외부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외부 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교육을 점검, 환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은 임피제 직원에 대한 직무만족도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수렴에 기반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통하여 임금피크 인력 운영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1.7% 이내	1.302%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인상률 범위는 1.7%이내이며,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302%로 지침에 따른 인상률 범위를 준수하여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기본급 인상 등 인건비 집행액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감안한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관리 노력으로 정부지침 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가 제시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잘 준수하고 있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물나눔서비스 사업, 물안심서비스 사업, 물융합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된 3개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물공급 안정성,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물공급 효율성, 치수 안전도, 이수 안전도, 안전 관리율,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물산업 육성 노력도, 신재생에너지 성장성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라고 판단된다. 물나눔서비스의 가중치는 총 12점으로 전체 가중치 24점 중 50%의 비중을 설명하고 있어 기관의 핵심사업인 '물나눔(물공급)서비스'의 중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물공급체계에서 광역상수도는 2020년 관로사고를 제외하면 단수비율 '0'을 지속적으로 기록 중이며, 지방상수도에서는 고객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불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수인구와 단수시간을 동시에 사용한다. 지방상수도 선진화를 위해 우수율 달성도와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여 지표의 지속성과 기관의 개선노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광역과 지방상수도 성과의 평가기준이 상이하므로 향후 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물안심서비스 사업의 신규 계량지표의 하나인 이수 안전도는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유역별 물이용 안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제불능성이 별도의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물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공공적인 역할을 잘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물융합서비스 사업의 모든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채택하여 기관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 가중치 24점 중 21.802점을 획득하였다.
- 기관은 세계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정수장 구축과 국제표준화(ISO)에 도전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 도입에 매진하여 국민의 기대수질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우수율 제고와 단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후 상수도의 현대화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누수탐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

적인 자산관리 및 선제적인 사고방지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비용절감으로 7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하였고, 비상급수 설비와 병입수돗물로 국가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높지 않은 지방상수도 우수율과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기관은 기후위기에 대한 최적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댐홍수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해외에까지 진출한 점은 우수사례로 간주된다. 다만, 방류통보 운영미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규정 마련 및 교육과 소통 체계의 확립은 필요하다. 그리고, 물융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진출에 매진하고 있어 해외 매출 및 수출액, 해외진출 기업 및 진출국가 수가 증대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1 물나눔서비스 사업

(1) 물공급 안정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50% + ②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50%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 $\sum (\text{단수인구} \times \text{단수시간}) / \text{총 관로연장(km)}$
-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 $\sum (\text{단수인구} \times \text{단수시간}) / \text{급수인구}$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광역) 단수사고 예방노력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000 최저치 : 0.636	0.000	100.0	2.0	2.000
(지방)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000 최저치 : 0.455	0.006	99.0	2.0	1.980
합 계				99.5	4	3.98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역상수도과 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22개 지방상수도의 단수사고 저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광역상수도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통한 단수사고 0건으로 ‘단수사고 예방노력’ 만점을 달성하였고 지방상수도는 단수사고 1건이 발생하여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은 평점 99.0점, 득점 1.980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99.5점, 득점 3.98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단수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후관 개량, DT 및 AI 기술적용 스마트 관리 등 노력으로 광역상수도는 단수사고 0건을 달성하였고, 단수사고 발생 시 비상급수 및 신속한 사고 복구체계 구축 등 노력을 통하여 지방상수도는 전년 대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이 감소되었다.

라. 추세분석

-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로의 특성상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 및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다양한 사고발생 원인과 넓은 관리 범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스마트 관망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무단수 및 단수저감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광역) 단수사고 예방노력	0.000	0.000	0.796	0.000	0.000	0.000
(지방)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0.000	0.002	0.000	0.002	0.402	0.006

(2)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60% + ②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 달성률 40%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횟수 /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						
•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 제공건수 / 목표건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목표부여	최고치 : 1.0000 최저치 : 0.7998	0.9998	99.9	2.4	2.398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목표대실적	126,000	130,735	100.0	1.6	1.600
합 계				99.9	4.0	3.998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광역 및 지방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과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은 평점 99.9점, 득점 2.398점을,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은 만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99.9점, 득점 3.998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횟수는 58,150건 이며, 그 중 12건을 제외한 58,138건이 글로벌 수질기준을 통과(99.98%)하였다. 국민이 수돗물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돗물 신뢰를 향상하고자 2021년 신설한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은 목표(126,000건) 대비 높은 실적(130,735건)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이상기후로 인한 조류독소 증가 및 평가대상의 50%가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수장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진국대비 평균 3배 엄격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99.9%)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0.9998	0.9999	0.9999	0.9998	0.9994	0.9998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	-	-	1.077	1.080	1.038

(3) 물공급 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광역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10% + ② 지방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78.5% + 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도 21.5%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광역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목표부여	최고치: 1.000 최저치: 0.800	1.000	100.0	0.400	0.400
지방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목표부여	최고치: 0.848 최저치: 0.815	0.851	100.0	2.825	2.825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0.853 최저치: 0.843	0.851	80.8	0.775	0.626
합 계				96.3	4	3.851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상수도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광역 및 지방 유수율 달성도’는 100%, ‘지방 유수율 향상도’는 유수율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등 개선에도 득점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평점 80.8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광역상수도 유수율은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으로 만점을 달성하였다.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주기적 이상구간 원인파악, 합동 누수탐사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협약 유수율(83.9%), 전년 실적(84.8%)을 뛰어넘는 85.1%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광역상수도 우수율은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100%)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우수율은 수탁 지자체의 인력·예산 한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향상 추세에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광역상수도 우수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상수도 우수율(%)	84.1	84.2	84.3	84.3	84.8	85.1

(4) 물나눔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에 감안하여 수돗물 공급 혁신, 포용적 물복지 강화,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을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스마트·고품질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보편적 물복지 실현, 수돗물 신뢰 제고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기관은 성과지표로 국민기대 수질 달성률, 탄소중립 정수장,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급수 취약지역 인구 해소, 수돗물 안심서비스,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6개의 지표를 계량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물 생산·공급 스마트화, 초순수 기술자립과 산업육성, 지방상수도 선진화 지원, 기업 맞춤형 용수공급, 국민친화 요금제도 운영 등의 5개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성과지표로 일본의 고도정수처리 도입률과 지방상수도 우수율을 선정하고 기관이 달성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타 기관의 성과지표 체계와 비교하여 계량화 수준이 높고, 11개 전체 성과지표 중 9개 지표가 계속 유지되는 점은 지표들의 타당성과 정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관의 비전인 글로벌 물기업에 적합한 2개의 글로벌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 기관은 평가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중장기 사업추진전략에 맞추어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운영방향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력, 재무예산 등 경영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요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평가대상사업 중 국민체감서비스 개선 사업은 예산 및 인력 배분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안정적인 물나눔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지표의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서는 내부성과관리체계에 ESG경영위원회와 ESG 지표 등을 수립하고, 국민소통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율운영 알고리즘 및 AI플랫폼 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 AI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구축하여 물공급 전 공정을 자율운영하고 있으며,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AI스마트 정수장의 국제 표준화(ISO)를 위해 도전하고 있다. 또한, 관로의 파손 예측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로 디지털트윈 시범정수장을 구축하였으며, 관로의 잔존수명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1,383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다. 다만 이러한 기술들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기관의 운영 관리업무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기관 전체의 성과 제고와 비용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실행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취수원에서 관로까지 전 과정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수돗물 수질을 글로벌 식품위생 수준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실행하였다. 고품질스마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39개 모든 광역정수장에서 ISO 22000 인증을 유지하였으며, 유충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또한, 국민 기대수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2023년에는 50%까지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활성탄의 안정적 수급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사용한 활성탄의 재생산과 재활용을 통해 원가절감 및 요금동결에 기여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전사자원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저에너지 탄소중립 정수장을 5개에서 16개로 확대하였고, 국산기술 기반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의 성공은 물공급 혁신성을 나타내는 우수사례로 판단된다.
- 기관은 지방상수도 우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단수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2023년 역대 최고의 85.1% 지방상수도 우수율을 달성하였고, 누수량을 127만톤 감소시켰으며, 노후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도 10개 성과판정 대상 사업의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관은 유충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낙동강 지역 집중호우 위기와 도서지역 물부족 문제 및 잼버리 국제행사 위기를 비상급수와 병입수돗물로 극복하였으며, 군대, 산간지역 및 해외 전쟁지역 등 물이용 취약지역에 수도시설 도입 및 이동형 수처리설비를 제공하는 점은 포용적 물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의 차별화된 노력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2017년부터 7년간 수도요금을 동결 중이고,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을 지자체와 자율적인 절수협약과 장기적인 물공급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예정보다 5년 단축된 2030년부터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수돗물 통합정보 제공으로 동파, 단수 등 사고의 예방과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고객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소통하여 고객응대 만족도가 2023년에 84.20점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반도체 용수공급은 계획단계이며 실제 용수공급은 2030년에 개시될 예정이라 2023년 업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평가 대상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하여 물나눔서비스 사업 성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제시된 2개의 글로벌 성과지표와 6개의 계량성과지표 중 수돗물 안심서비스만 근소한 차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목표 실적을 달성하였다. 다만, 계량 성과지표 6개중 국민 기대수질 달성률과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사업 예산과 연동되어 있어 충분히 목표 달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포용적 물 복지 강화사업의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위탁 지방상수도 단수시간의 높은 변동성과 우수율의 지속적인 정체, 그리고 고객만족도 84.16점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비계량 성과와 관련하여 AI 정수장 기술검증 및 글로벌 표준화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하여 시운전 중에 있다. 또한 전 지자체 수도정보 통합 및 국가 수도정보 통합 모니터링을 개시하였으며, 정수장과 관로까지 디지털 기술 도입에 노력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 도입률을 제고하였고, 수돗물 사랑방 운영, 이동식 음수대 가동, 동파위험 알림 서비스 시행, 플라스틱 저감 등의 ESG 성과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물나눔서비스 사업의 평가대상 사업별로 계획수립·실행·모니터링·성과평가·환류 프로세스의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2022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발굴된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들을 2023년에 확산·개선하여 환류하였고, 2023년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ISO 인증 유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위생관리 노력 지속 추진, 현대화 사업 성과 판정, 수도사고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광역상수도 물공급서비스 증점과제 도출 및 추진, 수돗물 안심서비스 지속 확대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2024년도 증점추진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활동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탄 수입다변화 모색 및 안정적 포트폴리오 필요, 요소기술(AI정수장, D/T정

수장, D/T관로) 검증, 업무효율 향상 및 예산절감 연계, 계량지표의 도전적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 필요, 지방상수도 단수시간, 우수율, 고객만족도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 등의 조치내용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나눔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2 물안심서비스 사업

(1) 치수안전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재해피해액 100%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0.000 최저치: 44,473	238	99.6	3	2.987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의 홍수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재해피해액으로 평가하는 신규 지표로, '20년 홍수로 인한 재해피해액 배상으로 평점 99.6점, 득점 2.987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1년 이후 홍수 無 피해를 달성하여 '20년 홍수 예방 목적의 수문 방류 피해액 외 추가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아 '23년도 배상금은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 예측이 어려운 태풍 등 물재해 위기에 전 국토 디지털 트윈 등 전문적 사전예측과 스마트 관리기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정부 발표 시점에 따른 피해액 규모의 유동성으로 실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해피해액	-	-	-	245	37,071	238

(2) 이수안전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Sigma \text{유역별 가뭄대응노력} = \text{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일수} \div 365 \times \text{각 댐 저수용량 비중}$$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한강 가뭄대응노력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1.000 최저치: 1.000	1.000	100.0	1.438	1.438
금강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1.000 최저치: 0.979	0.998	93.1	0.607	0.565
영섬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1.000 최저치: 0.592	0.788	58.4	0.238	0.139
낙동강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1.000 최저치: 0.865	0.730	20.0	0.717	0.143
합 계				76.2	3	2.285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연중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유역별 물이용 안정성 제고 노력을 저수량 준수 일수로 평가하는 지표로써 한강 유역은 기준저수량 준수로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으나, 남부 지역 중심의 극한 가뭄 영향으로 영섬, 낙동강 유역은 각각 58.4점, 20점을 기록하였으며 금강 유역은 보령댐의 만성적 가뭄으로 93.1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22년부터 이어진 남부, 충남 서부지역의 극한가뭄 장기화에 따른 기준저수량

유지 한계로 안동·임하댐, 합천댐, 주암댐, 보령댐이 각각 135일, 42일, 104일, 14일간 주의단계 미만 저수량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심화되는 기후변동성 대응의 어려움에도 댐·보 연계 운영 등 기관의 가뭄 대응 노력을 통해 수준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22년 이후 감소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수안전도	3.790	3.983	4.000	3.984	3.504	3.516

(3) 안전관리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인명사고(근로자+국민) + 시설(설비)사고 / 상시근로자수 + 관로연장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0.003 최저치: 0.008	0.005	66.8	2	1.337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인명 및 시설사고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신규 지표로 시설(설비) 無사고 달성 및 인명사고 전년대비 15% 저감으로 평점 66.8%, 득점 1.337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재난안전, 국민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항목별 과제 설정, 조직·인력·예산 확대 및 디지털관리 노력 등으로 시설사고 ZERO달성 및 근로자와 국민 인명사고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5건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100개 이상의 작업장과 전국 단위의 관리구역, 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 여건에도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강화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역대 최저 안전관리율을 달성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관리율	0.008	0.009	0.006	0.006	0.006	0.005

(4) 물안심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역 전반의 물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댐 최적 운영 달성률, 조류 발생 예측 정확도, 대체 수자원 시설용량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배분 등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물재해 대응강화, 유역 물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하위 대상 사업의 성과지표가 변화하면 사업 간 우선순위도 이에 따라 변화될 소지가 있어서, 대내외 환경분석을 우선 고려하는 등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전략과 정책, SMART를 같은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전략과 정책보다 기술적 요인에 의해 지표의 적정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본말전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략과 정책을 우선한 후 기술적 요소를 판단하는 등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평가 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 기관은 비계량지표의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구체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3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2023년 목표를 마일스톤 방식에 의해 국가 정책 반영 건수, 예산확보 금액, 과제 확대 개수 등으로 명확히 하여 구체성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지속가능한 물관리’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는 ‘물그릇 확충 및 통합물관리’로 성과지표의 구체성이 2022년 ‘통합물관리체계 강화’보다 후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계량성과지표 및 비계량성과지표의 목표의 도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계량지표인 댐·보 안전등급 확보율 목표 달성 후 해당지표를 폐지하고 비계량지표를 도입한 것은 성과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질예측률 폐지 및 조류발생 예측 정확도 도입에 있어서도 수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수자원 관리 권한과 자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고도화 지표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물재해 대응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최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트윈 댐홍수관리시스템을 전 국토에 구축하고 사우디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 니즈형 신규 물그릇 확보와 통합물관리로 국민의 물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용담·대청댐 사업 등 지역상생의 물환경 공간에 대한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정제된 국가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만성 수질악화 지역인 서낙동강 하천 수질을 BOD 기준 기존 Ⅲ등급에서 Ⅱ등급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단의 신설로 인한 물수요 증가와 가뭄 등으로 물부족이 심화되는 이중고 상황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수’ 연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 물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물부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5가지 우수사례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우수사례를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용화 및 글로벌 진출로 꼽고 있는데 디지털트윈 댐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우수사례 선정 기준을 향상시켜 글로벌 탑 수준의 물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기관은 다양한 사업계획의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해 마일스톤 기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의 목표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시점, 목표 달성을 예측하였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집행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관이 채택한 마일스톤 기법 등 사업별 집행 관리 기법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녹조 모니터링 기술 확대 및 수량·수질 통합관측소를 누적 7개소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여 조류발생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성과지표인 '조류발생 예측 정확도'의 목표설정은 직전 3개년 정확도 실적 평균에서 3%p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을 최종 달성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2023년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설정과 달성 수준은 3년 전인 2020년 실적 91.5%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전적 목표에 대한 적절한 집행 수준인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비교 대상으로 글로벌 Top 7 국가의 정보는 미공개 상태여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호주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호주의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달성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수준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댐 최적 운영 달성률, 디지털 물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계량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계량지표 목표 달성은 기관이 연내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달성된 목표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개선 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므로, 달성 목표 수준이 과연 도전적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자체 진단하고, 각 계량지표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분석하여 체계적인 마일스톤 관리 노력을 통하여 목표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비계량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마일스톤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간 정채되었던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신규담을 국가정책에 반영·확정하였고, 물기관 협업을 통하여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하여 통합물관리협의체 협력 과제수를 확대하는 노력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비계량 지표의 목표 달성 가능 여부의 판단 시점을 예산확보 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 달성이 과연 적절하게 판단되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계량지표의 목표 달성은 정책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확보가 필연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비계량지표의 목표가 정책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과정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감사원 주의 조치가 있었던 방류통보 운영미흡과 관련하여 2022년 경영평가 시, 방류통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복수부서에서 실행점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기관은 방류절차 진행상황, 통보 이력관리 등 기능개선 및 부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지역기관·지자체·주민 대상 댐운영 계획 소통을 분기 1회 정례화하여 이해관계자와 홍수대응 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는 현행 방류통보 운영에 대한 추가적 제도적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댐운영자 교육훈련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 간 홍수대응 소통 시에 이를 공유하여 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재해 대응, 유역 물 환경 개선 및 지속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점검 모니터링, 내외부 성과평가를 통하여 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해소하는 환류 조치를 통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각 대상 사업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내용은 다소 일반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고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류 활동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별 이슈관리 등 구체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물 재해 대응 강화와 유역 물환경 개선 관련 예산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정과제 등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효과성에 관하여는 기관이 2023년 중 이행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및 리스크의 사전 예방과 환류에 관하여 적절한 이행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증장기 투자계획의 마련과 통합형 물관리대책 등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이행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안심서비스 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물융합서비스 사업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수변공간 조성성과 40% + ②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간 조성성과 : 수변공간 조성면적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당해연도) •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 대금회수금액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당해연도 포함 3개년 평균)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수변공간 조성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4.071 최저치: 3.100	3.674	67.3	0.4	0.269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2.096 최저치: 0.676	1.114	44.6	0.6	0.268
합 계				53.7	1	0.537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사업 건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준공단계에 진입한 사업지구를 제외한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평점 67.3점, 득점 0.269점을,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평점 44.6점, 득점 0.268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53.7점, 득점 0.537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송산 및 구미하이테크 조성면적 증가로 실적이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부동산 경기 및 고금리 등 여건 악화로 계약, 착공 등 감소로 대금회수금액이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22년 단계별 조성으로 인한 설계·보상 구간 진입으로 조성

면적 증가율이 정체하였으나 지속적 공정 관리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적극 분양 추진 및 지속적 연체관리로 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3년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하락 전환되었으며, 적은 사업수로 인해 지표의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변공간 조성성과	3.535	3.604	3.614	3.952	3.190	3.674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0.387	0.521	0.591	0.874	1.386	1.114

(2) 물산업 육성 노력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국내시장 매출액 + 해외시장 매출액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222.749 최저치 : 179.718	257.376	100.0	2.0	2.0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하는 신규 지표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창출한 국내시장 매출액과 기관 ODA사업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해외시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산식에 따라, 만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벤처투자, 기술개발·실증, 판로개척까지 쉼 주기적 지원 및 ODA 사업 확대를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노력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7.9%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스타트업·영세기업의 자금·기술개발 여건 부족 및 국내·외 판로 확보 어려움, 경제 위축 등으로 '22년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제품 직접구매, 해외진출 플랫폼 제공 등 지속적 지원 확대로 '23년은 실적이 증가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외시장 매출액(억원)	-	-	181.1	206.0	201.2	257.4

* 기관의 ODA사업 '20년 이후 시작

(3)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신재생 설비용량 50% + ② 신재생 발전량 50%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신재생 설비용량 (MW)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1,447.9 최저치 : 1,369.9	1,422.4	73.9	0.5	0.369
신재생 발전량 (kWh)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509,084,611 최저치 : 458,457,457	503,818,081	91.7	0.5	0.458
합 계				82.7	1	0.827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설비용량과 발전량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지표로써, 신재생 설비용량은 평점 73.9점, 득점 0.369점을 달성하였으며, 신재생 발전량은 평점 91.7점, 득점 0.458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수상태양광 준공 등에 기인한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전년대비 각각 0.96%,

4.14% 상승하였다. 다만, 특점은 산업부 계통연계 불허에 따른 추가 설비증설 지연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조수차, 일조량 등 원인으로 발전량 증대 한계로 평점은 82.7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수상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며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발전량 역시 최근 3개년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1,357.6	1,364.0	1,364.6	1,390.4	1,408.9	1,422.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	513,098,832	499,720,479	482,129,556	480,547,013	483,771,034	503,818,081

(4) 물융합서비스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 비전, 핵심가치,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물융합서비스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도출하였다.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 수변도시 가치창출, 물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플랫폼 강화라는 4개의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전략연계, 정책부합, SMART분석 등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기관의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주요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연계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 사업에서 계량지표에 이미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계량성과지표를 폐지하고 수출기업지원 지표로 대체하고, 수변도시가치창출사업에서 계량적이며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수준으로 변경

하였다. 또한, 물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기술성과 평가 실효성이 미흡한 기술성과 창출노력을 폐지하고물관리 기술개발 사항인 물관리 솔루션 개발 계량성과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중복되는 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적절한 신규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이 설정한 수변도시 가치창출 사업에서 분양 및 수납금액과 조성면적 계량성과지표와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계량지표와 유사하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강화 사업에서 해외사업 매출액과 민간매출 창출액 계량성과지표가 물산업 육성 노력도 내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 매출액 계량지표와 유사하다. 기관은 비계량지표의 목적을 고려하여 비계량성과지표와 계량지표가 차별화되도록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네이버 기업과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전자와도 조력에너지 개발협력을 맺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차후 연도에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성남 그린수소 실증시설을 완성하여 그린수소 생산량 557(ton/연)을 확보하고 소양강댐과 대청댐에 수열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착공하여 연간 1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수상태양광의 설치로 인하여 어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생태계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시설물의 설치가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개체수 증가를 전체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개체가 증가하는 것이 생태계 교란이 온 것일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생태계에 영향에 대하여서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기관은 수변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에코델타시티에 디지털 트윈 기반 리빙랩 혁신기술을 확산하고자 시민주도의 기술개선을 포함하여 입주민-기업-기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및 강원수열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도시수목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하고 탄소숲을 조성하여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2023년도 130개사가 증가한 569개의 기업을 발굴하였고 물산업 투자 누적액이 580억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AI기반 CCTV를 통해 홍수 대응, AI기반 상수원수질 예측, 수돗물 안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사업과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수출은 292억원에서 68% 상승한 490억원, 진출기업은 66개사에서 136% 증가한 156개사, 개척국가는 12개국에서 75% 상승한 21개사로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예시국가로 제시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여전히 전쟁 중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광, 친환경 수변, 저탄소 산단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 기관은 2021년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에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1개 업체뿐이었는데도 재공고 없이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이러한 EPC 우선협상대상자 부당선정으로 인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및 징계문책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기관이 2015년 시작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은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자 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초기단계부터 사업지연 예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공기업 최초로 RE80을 달성하였다.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민간

기업 네이버와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네이버 본사의 경우 RE15에서 RE68을 달성하였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평가를 통한 인식의 전환과 주민의 수익 제고를 통해 소양강댐 양구 수상태양광을 준공하여 발전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창업사업화 성공기업수는 목표치에 근접한 101%를 달성하였다.물관리 솔루션 개발은 125%, 해외사업 매출액은 128.9%, 민간매출 창출액은 157.9%를 달성하여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성과를 달성하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물융합서비스 사업의 평가대상사업별로 계획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프로세스에 따라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전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발굴된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들을 2023년에 확산·개선하여 환류하였고, 2023년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로 반영함으로써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물에너지 사업 본격 확대, 기후탄력환경도시 조성, 물산업 전주기 지원 등 정책 및 사업비 측면에서 비율이 높으나 인력비중이 낮았던 점을 개선하여 20명의 인력을 보강하였다. 반면, 기관은 태양광 사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소양강댐 양구사업을 2023년 11월 적기에 준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양구 수상태양광 주민협의체 회의는 2022년 7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관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상태양광 준공시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융합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물나눔서비스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은 주요사업인 물나눔서비스 사업의 성과지표로 물공급 안정성,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물공급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물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공급영역을 광역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체계에서는 2020년 발생한 관로사고 2건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단수비율이 '0'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에서는 단수로 인해 고객이 체감하는 불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인 단수인구 수와 단수시간(단수인구 × 단수시간)을 동시에 사용하여 물공급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어 적정성이 높은 지표로 판단된다.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과 WHO, EU 및 OECD 대표국가의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만을 적용한 K-water 자체 수질기준이다. 먹는 물 관련 63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선진국보다 평균 3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 평가대상 정수장의 50%가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존재하는 사실 및 이상 기후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지표로 판단된다. 수돗물 안심서비스 지표는 지방상수도 사업 특성을 활용한 국민접점 체감형 서비스로서 5개 항목의 수질기준(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동) 검사를 통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다.
- 물공급 효율성 성과지표는 상수도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광역상수도 유수율은 이미 100%를 달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유수율 달성도와 향상도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지표의 지속성과 기관의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상수도 유수율의 증가율이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물공급 안정성 성과지표는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단수사고 예방 노력을 평가하는 하향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단수사고 '0'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도전성이 높은 지표로 판단된다.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지표는 기관이 생산한 수돗물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과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을 함께 평가하는 상향지표이며, 목표부여 방법과 목표대실적 방법을 각각 사용하였다.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지표는 모든 검사에서 글로벌 수준기준을 충족해야 최고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도전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은 서비스 제공횟수 목표달성의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등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 물공급 효율성 지표평가를 위한 광역 및 지방의 우수율 달성도는 목표부여 방법, 우수율 향상도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물나눔 서비스 3개의 지표는 기관이 수행하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특성과 성과 달성 여건에 맞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물공급 효율성 지표는 광역과 지방상수도 성과가 각각 다른 평가기준으로 측정·비교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물안심서비스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물안심서비스 사업의 계량지표는 치수안전도, 이수안전도, 안전관리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신규 지표이다. 치수안전도는 기관의 홍수대응 노력을 국민이 체감하는 재해피해액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편람상 재해피해액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침수피해액을 말하며 재무제표에 반영된 수치로 산출된다. 이때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재해피해액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송달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송으로도 재해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재해피해액의 산정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 이수안전도는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유역별 물이용 안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도 '예방적 가뭄 대응' 지표의 명칭과 산정방식이 다소 변경되었다. 예방적 가뭄 대응 지표는 주의단계 기준 저수량 이상을 전체 댐 합계로 산출하였으나 이수안전도 지표에서는 유역별 댐 합계로 산정한다. 이수안전도는 2023년 편람 기준 물안심서비스 사업 지표 중 통제불능성이 각 지표별 고려사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지표로, 이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고 보여진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물안심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치수안전도, 이수안전도, 안전관리율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수안전도는 극한 가뭄으로 인하여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 일수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도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치수안전도의 경우, 정부가 2020년 이후부터 배상 금액을 발표한 사실에 따라 과거 실적치가 3년 미만이므로 예외적으로 목표부여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기관은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지표별 목표 도전성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 물융합서비스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은 설립목적, 전략방향, 경영목표와 연관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였다.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고, SMART 분석 기반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략연계성, ESG 가치 등 정책부합성을 고려하여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물산업

육성 노력도,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지표를 대표 계량지표로 선정하였다.

- 물산업 육성 노력도 지표의 경우 기존 창업사업화 성공률 50%+중소기업 지원 제도 매출액 50%에서 국내시장매출액+해외시장 매출액으로 변경하였었다. 가중치 측면에서 전년도에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지표의 가중치를 2에서 1로 변경하고 대신 물산업 육성노력도 가중치를 1에서 2로 상승시켰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진출지원 확대 노력에 물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비중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은 전년도에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설비용량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까지 고려하여 지표를 고도화하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가중치의 측면에서 설비용량에 비해 에너지 생산량을 측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가중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과 같은 0.5임을 고려하면 실제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제고, 물산업 육성 노력도,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지표에 모두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과거 실적대비 2 표준편차 향상된 역대 최대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기관의 지표의 특성과 실적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도전성이 인정된다.

(4) 총평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의 계량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해당 주요사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를 위한 기준은 국내·외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만을 적용한 기관 자체의 수질기준으로 지표의 적정성이 높으며, 5개 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를 통해 고객의 불안감 해소와 수질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지표도 적정성이 높다. 다만, 지방상수도 유수율의 증가율이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물안심서비스 사업의 계량지표인 치수 안전도, 이수 안전도, 안전 관리율은 모두 신규지표로서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공공적인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들이다. 다만, 치수 안전도에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재해피해액 산정에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물융합서비스 사업 지표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성장성에서 단순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 이외에 실제 에너지 발전량을 포함하여 지표의 고도화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의 대다수 계량지표들은 일정 수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채택하여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모든 신규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채택하였고, 치수 안전도의 경우 과거 실적치가 3년 미만이므로 목표부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지만, 기관은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지표별 목표 도전성을 확보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